

#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and Abuse Experience in Childhood and Temperaments on Problem Behavior Perceived by Undergraduates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강 사 김 연\*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

Lecturer : Kim, Yeon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parenting behavior and abuse experience in childhood and temperaments affect problem behavior by sex as it relates to undergraduates.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s 220 undergraduates (males, 94; females, 126) attending universities located in Gyeonggi-do.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use of questionnaires during class.

According to the results, when parenting behavior experienced in childhood is negative, abuse experience is more frequent,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emperaments are negative, activity is higher, sociability is lower, and problem behaviors such as social withdrawal, hyperactivity, aggressiveness, and obsession are more prevalent. Moreover, for male students, the chief factors explaining their problem behavior are their father's lack of supervision, physical violence, their mother's excessive interference and irrational parenting behavior, and the temperaments of excessive worrying, high activity, and low sociability. In the cases of female students, the primary variables affecting their problem behavior are negative emotional temperaments, low sociability temperaments, their father's low affection, excessive interference, too rational explanation, and their mother's inconsistent parenting behavior.

---

▲주요어(Key Words) :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학대경험(abuse experience), 기질(temperaments), 문제행동(problem behavior)

### I. 서론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 시기는 자신의 내적 세계와 외적 환경을 탐색하고 이후 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체감 형성과 직업선택 및 결혼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이며(Felsman & Blustein, 1999), 친밀감의 형성과 부모로부터의 물리적, 심리적 독립이라는 발달과업을 갖는 시기이다(Erikson, 1963).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

들에서는 대학생의 우울, 불안과 같은 문제행동 증상이 중·고등학교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조성진 등, 2001; 이은희, 2004)을 보고하여 대학생들이 심각한 부적응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학생이 후기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대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문제행동 점수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수는 별

---

\* 주 저 자 : 김연 (E-mail : kyeon802@hanmail.net)

차이가 없으며(Colman, et al., 1977), 아동기에 보였던 문제행동은 청년기나 성인기에 이르러 반사회적 행동 및 범죄행위로 진전될 수 있음(남소현, 김영희, 2000; Garbarino & Vondra, 1987)을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은 아동기에 이미 문제의 원인이 작동하고 파생될 수 있다(Loeber & Hay, 1997)고 하여 청소년 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이 아동기에 경험했던 다양한 환경들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행동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들은 문제행동의 원인을 가정환경 및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특성에서 찾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초기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Khaleque & Rohner, 2002)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경험하는 일차적인 사회화 기관으로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Shaffer, 1999). Parker와 Benson(2004)는 개인이 갖는 부모와의 유대감은 성인기를 거쳐서 지속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한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가정 내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개인이 접하는 최초의 인간관계로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영유아기를 거쳐 청소년기, 나아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행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과잉간섭이나 과잉통제를 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신경질적이며, 자기중심적인 특징이 있어서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열등감을 많이 느끼며 자극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침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경질적인 성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문유선 · 김도훈, 2001; Nelson, & Erwin, 2000). 이는 부모들의 과도한 보호와 통제는 자녀의 자율성과 주도성 발달을 저해하는 위협요소로서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정신 병리적 특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낮은 감독과 관여를 특징으로 하는 방임은 비행과 특히 관련이 있으며(Kolvin, et al., 1988; Laub, & Sampson, 1988), 이후 약물 남용(Baumrind, 1991), 낮은 학업성취(Crouter, et al., 1989)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부모의 허용, 관대함, 감독의 결여 등으로 아동의 외현화 행동에 대해 부모가 참고 무시하는 것이 실제로는 공격성을 격려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부모의 관여와 반응성이 아동의 순응 행동과 협동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arpal & Maccoby, 1985). 이에 대하여 국내의 연구에서도 방임적인 양육행동은 남아의 외현화 문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허용적이며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이 규칙이나 기대를 명확히 하는데 방해가 되어 아동의 부적절한 사회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김현정, 2001; 이민식 · 오경자, 2000). 따라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기 양육경험이성인기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적응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Parker 등(1992)는 낮은 부모의 돌봄이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부정적인 부모-자녀 결속을 가져오고 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생활상의 위기에 대처하는 기제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적응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Egeland 등(1993)은 아동기의 애착 경험은 성인기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정신건강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하여 아동기의 양육경험이 성인기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자녀는 지나치게 수줍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회적인 위축현상을 나타낸다(Davis & Carlson, 1987; O'Keeffe, 1994; Pelcoitz & Kaplan, 1994). 또한 원만한 가정의 자녀들보다 공격적이고 과다행동을 하는 것으로 (Hershorn & Rosenbaum, 1985; Jouriles, et al., 1987) 알려져 있다. 특히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타인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기나 성인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강박관념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iere & Runtz, 1989; Carmen, et al., 1984; Kratcoski & Kratcoski, 1982). 이와 관련하여 Claussen과 Crittenden(1991)은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서와 인지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Glaser(2002)는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성인기에 정서적인 부적응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심리적 장애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Krause 등(2003)은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아동이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여 만성적으로 정서를 억제하게 하고, 이러한 정서 억제는 우울, 불안과 같은 성인기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 학대 경험은 학대경험 당시에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후기 청소년기부터 분노와 적대감 등의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느껴 문제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문제행동과 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은 아동기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학대경험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언하는 가장 큰 변인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기의 부정적 양육경험과 학대경험은 성인기의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의 영향으로 아동기의 부모 양육행동과 학대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기는 자기이해에 대한 폭을 넓히는 시기로 자아존중감의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며, 성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라는 발달과업을 갖는 시기이다(정옥분, 2004).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성차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낸다. 특히 남아의 자아존중

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여아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Bishop & Ingersoll, 1989)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후기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에도 서로 다른 특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여 각각의 양육행동이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질 또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연, 2007; 박종효, 2004; 장덕희, 2004; 한창환, 2001; Nelson, et al., 1999; Personen, et al., 2003).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질 차원 중에서 부정적 정서는 공격성, 품행장애, 과잉행동 등의 외현적인 문제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elson et al., 1999). 김연(2007)은 기질이 유아의 위축과 같은 내면적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이나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문제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한창환(2001)은 여학생 청소년의 경우 기질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기질이 유아기나 아동기를 비롯하여 청소년기에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또한 박종효(2004)는 기질적으로 활동수준이 높고, 분노의 정서를 높게 나타내는 아동은 우울과 반항행동을 비롯한 부주의한 행동을 많이 보이는데, 이는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 하여 기질의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특히 불규칙성, 잦은 부정적 정서, 낮은 적응성,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강렬하면서도 회피적인 반응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까다로운 기질이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Thomas와 Chess(1978)의 뉴욕중단연구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연구(신보영, 1999; 최영희, 1990)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영유아기나 아동기에 측정된 까다로운 기질 특성이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Korn, 1984; Personen, et al., 2003)는 연구 결과는 기질 특성이 일생에 걸쳐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기질적 특성과 향후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횡단적 연구들은 기질적 특성들이 발달장애나 정신장애를 일으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인기에 가까운 청소년 후기에도 같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나타내는 시사점과

추론되는 이론적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서 청소년 후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학대 경험, 기질, 문제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 경험과 기질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20명(남: 94, 여: 126)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만18세~20세 이하가 160명(7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21세~22세 이하가 36명(16.4%), 만23세~25세 이하가 24명(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성별에 따른 연령과 분포는 <표 1>과 같다.

### 2. 연구도구

#### 1) 문제행동 측정

대학생의 문제행동 측정은 Achenbach & Edelbrock(1979)가 제작한 아동행동목록 질문지를 참고로 박근혜(1999)가 재구성하고, 이를 대학생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이선옥(2004)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사회적 위축, 과잉행동, 공격성, 강박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이다. 평정은 대학생의 자가 보고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문제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hronbach's  $\alpha$ ) 계수는 .79~.88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표 1> 연구대상의 성과 연령 분포

구 분	성 별		합계(%)	
	남(%)	여(%)		
연 령	만18세~20세 이하	57( 60.6)	103( 81.7)	160( 72.7)
	만21세~22세 이하	19( 20.3)	17( 13.5)	36( 16.4)
	만23세~25세 미만	18( 19.1)	6( 4.8)	24( 10.9)
계	94(100.0)	126(100.0)	220(100.0)	

## 2) 기질 측정

대학생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Plomin (1984)이 개발한 성인용 기질 검사(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Adult E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성 차원으로 통합 가능한 걱정, 두려움, 분노 요인과 활동성, 사회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총 20문항이다. 반응양식은 원래 리커트식 5점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평정은 대학생자가 보고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각 하위요인들의 신뢰도(Chronbach's  $\alpha$ ) 계수는 .64~.80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3) 부모의 학대 경험 측정

부모의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정옥과 박경규(2002)가 사용한 폭력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폭력 8문항과 언어적 폭력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17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이다. 평정은 대학생의 자가 보고로 이루어지며, 자신이 18세 이전의 아동기동안 아버지, 어머니와 있었던 경험을 각각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학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hronbach's  $\alpha$ )계수는 신체적 폭력이 부모 각각 .85, .83이며, 언어적 폭력은 .88, .87이다.

## 4) 부모의 양육행동 측정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허묘연(2000)이 개발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 애정의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43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대요인(6)을 제외한 37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평정은 대학생의 자가 보고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하여 각각 이루어졌으며, 자신이 18세 이전의 아동기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바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hronbach's  $\alpha$ )계수는 .72~.87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 3. 연구절차

본 검사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 여 대학생이 수강한 3개의 교양강좌 수업시간에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가 본 검사의 목적과 반응방법을 대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질문지를 한 가지씩 나누어 주어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총 40분 이었다. 회수된 질문지는 총 233부였으나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13부를 제외하고 총 220부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연령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 경험, 기질과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남, 여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 기질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남, 여 대학생의 문제행동 차이

문제행동	성별	M	SD	t
문제행동 전체	남	2.11	.34	1.94*
	여	1.98	.35	
사회적 위축	남	2.03	.59	.55
	여	1.96	.53	
과잉행동	남	2.34	.53	2.45**
	여	2.11	.46	
공격성	남	1.68	.53	1.19
	여	1.56	.47	
강박성	남	2.40	.54	1.10
	여	2.28	.57	

\*p<.05, \*\*p<.01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제행동 전체 평균은 남학생(M = 2.11, SD = .34)이 여학생(M = 1.98, SD = .3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1.94, p < .05). 하위요인별로는 과잉행동에서 남학생의 평균(M = 2.34, SD = .53)이, 여학생의 평균(M = 2.11, SD = .4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2.45, p < .01). 그러나 사회적 위축, 공격성, 강박성요인은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남자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학대 경험, 기질과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남자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의 문제행동 전체점수는 기질의 하위요인인 정서성의 걱정(r = .61, p < .01), 두려움(r = .45, p < .01), 분노(r = .45, p < .01)가 높을수록, 사회적(r = -.36, p < .05)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학대 경험과의 관계에

서는 어머니의 학대경험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언어적 학대(r = .29, p < .05)와 신체적 학대(r = .31, p < .05)가 많을수록 문제행동의 전체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r = -.34, p < .05)이 낮을수록, 과잉간섭(r = .36, p < .05)이 많을수록 문제행동은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감독(r = -.42, p < .01)수준과 애정적(r = -.34, p < .05)양육행동이 낮을수록, 비밀관적(r = .33, p < .05), 과잉간섭(r = .34, p < .05), 방임(r = .39, p < .01)의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문제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 행동은 기질의 정서성 걱정(r = .37, p < .01), 두려움(r = .57, p < .01)이 많을수록 사회적(r = -.62, p < .01)과 활동성(r = -.34, p < .01)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는 관계가 없었다.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합리적인 설명(r = -.48, p < .01)과 애정적(r = -.36, p < .01)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과잉간섭(r = .31, p < .01)과 방임적(r = .37, p < .01)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방임적(r = .37, p < .01)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애정적(r = -.32, p < .05)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행동은 기질의 하위요인인 정서성의 걱정(r = .35, p < .01)

<표 3> 남자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학대경험, 기질과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하위요인	문제행동 전체	사회적 위축	과잉 행동	공격성	강박성
<b>기 질</b>					
걱 정	.61**	.37***	.35*	.33	.48**
정서성 두려움	.45**	.57***	.17	-.04*	.44**
분 노	.45**	.01	.32*	.54	.31*
사회성	-.36*	-.62***	-.04	.18**	-.39**
활동성	.17	-.34***	.42**	.28	.13
<b>학대경험</b>					
모언어적폭력	.16	.19	.03	.14	.04
모신체적폭력	.19	.02	.23	.25	.03
부언어적폭력	.29*	.02	.07	.49**	.17
부신체적폭력	.31*	.01	.13	.51**	.14
<b>어머니 양육행동</b>					
감독	-.10	-.11	-.19	.05	-.01
합리적설명	-.34*	-.48**	-.28	.19	-.25
비밀관성	.27	.14	.12	.12	.31*
과잉기대	.20	-.04	.29*	.07	.20
과잉간섭	.36*	.31*	.26	-.05	.36*
방 임	.21	.39**	-.08	.02	.17
애 정	-.11	-.36**	.03	.06	.03
<b>아버지 양육행동</b>					
감 독	-.42**	-.11	-.41**	-.31*	-.24
합리적설명	-.28	-.26	-.18	-.05	-.21
비밀관성	.33*	.12	.08	.32*	.32*
과잉기대	.27	-.05	.19	.26	.31*
과잉간섭	.34*	.25	.07	.17	.36*
방 임	.39**	.37**	.02	.38**	.21
애 정	-.34*	-.32*	-.09	-.29	-.16

.05)과 분노( $r = .32, p < .05$ ), 활동성( $r = .42, p < .01$ )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과잉기대( $r = .29, p < .05$ )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감독( $r = -.41, p < .01$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기질의 정서성에서 걱정( $r = .33, p < .05$ )과 분노( $r = .54, p < .01$ )가 많을수록, 아버지로부터의 언어적학대( $r = .49, p < .01$ )와 신체적학대( $r = .51, p < .01$ ) 경험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감독( $r = -.31, p < .05$ ) 수준이 낮을수록, 비밀관적( $r = .32, p < .05$ ) 행동과 방임( $r = .38, p < .01$ ) 행동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는 관계가 없었다.

강박성은 기질의 정서성에서 걱정( $r = .48, p < .01$ ), 두려움( $r = .44, p < .01$ ), 분노( $r = .31, p < .05$ )가 많을수록, 사회성( $r = -.39, p < .01$ )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는 비밀관성( $r = .31, p < .05$ )과 과잉간섭( $r = .36, p < .01$ )이 많을수록 강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 중에는 비밀관성( $r = .32, p < .05$ ), 과잉기대( $r = .31, p < .05$ ), 과잉간섭( $r = .36, p < .05$ )이 많을수록 강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자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학대 경험, 기질과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여자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학생의 문제행동 전체점수는 기질 하위요인인 정서성의 걱정( $r = .64, p < .01$ ), 두려움( $r = .52, p < .01$ ), 분노( $r = .48, p < .01$ )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애정적( $r = -.35, p < .01$ )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문제행동 전체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문제행동 전체점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문제는 기질 하위요인인 정서성의 걱정( $r = .48, p < .01$ ), 두려움( $r = .62, p < .01$ )이 많을수록, 사회성( $r = -.53, p < .01$ )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감독( $r = -.28, p < .05$ )수준과 합리적인 설명( $r = -.27, p < .05$ ), 애정적( $r = -.40, p < .01$ )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감독( $r = -.26, p < .05$ )수준과 합리적인 설명( $r = -.27, p < .05$ ), 애정적( $r = -.46, p$

<표 4> 여자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학대경험, 기질과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하위요인	문제행동 전체	사회적 위축	과잉 행동	공격성	강박성
기 질					
걱 정	.64**	.48**	.26*	.32**	.67**
정서성 두려움	.52**	.62**	.07	.24	.46**
분 노	.48**	.09	.44**	.48**	.35**
사회성	-.22	-.53**	.31*	-.06	-.26*
활동성	.13	-.20	.33**	.05	.19
학대경험					
모언어적폭력	.19	.12	.07	.21	.08
모신체적폭력	.15	.03	.16	.24	.03
부언어적폭력	.06	.09	.02	.12	-.07
부신체적폭력	.15	.11	.09	.16	.08
모양육행동					
감 독	-.18	-.28*	.06	-.08	-.17
합리적설명	-.07	-.27*	.14	-.07	.02
비밀관성	.23	.38**	.09	.04	.14
과잉기대	.14	.01	.24	-.01	.15
과잉간섭	.03	-.08	.18	.01	.01
방 임	.25	.41**	-.06	.06	.23
애 정	-.25	-.40**	.04	-.12	-.17
부양육행동					
감 독	-.06	-.26*	.22	-.01	-.06
합리적설명	-.15	-.27*	.07	-.11	-.04
비밀관성	.23	.21	.02	.15	.22
과잉기대	.07	-.01	.22	-.09	.08
과잉간섭	.19	.03	.29*	.14	.10
방 임	.16	.34**	-.09	.04	.12
애 정	-.35**	-.46**	-.01	-.24	-.23

<.01)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그리고 방임적( $r = .34, p < .01$ )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여학생의 사회적 위축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행동은 기질 하위요인인 정서성의 걱정( $r = .26, p < .05$ ), 두려움( $r = .44, p < .01$ )을 많이 느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성( $r = .31, p < .05$ )과 활동성( $r = .33, p < .01$ )이 높을수록 과잉행동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가 과잉간섭( $r = .29, p < .05$ )을 많이 할수록 여학생의 과잉행동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과잉행동은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는 관계가 없었다.

공격성은 기질의 하위요인인 정서성에서 걱정( $r = .32, p < .01$ )과 분노( $r = .48, p < .01$ )를 많이 느끼는 기질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대경험은 여학생의 공격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공격성은 자신의 기질적 특성과만 관계가 있었다.

강박성 역시 기질의 하위요인인 걱정( $r = .67, p < .01$ ), 두려움( $r = .46, p < .01$ ), 분노( $r = .35, p < .01$ )를 많이 느낄수록, 사회성( $r = -.26, p < .05$ ) 기질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양육행동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 경험과 기질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1)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문제행동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문제행동의 전체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기 양육행동과 학대경험, 그리고 대학생 기질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제행동 전체점수에 대해서 남학생의 경우는 기질 하위요인인 정서성의 걱정( $\beta = .62, F = 35.42$ )이 43%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성( $\beta = -.26, F = 22.74$ )이 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기질 하위요인인 정서성의 걱정( $\beta = .71, F = 52.72$ )이 46%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 $\beta = -.39, F = 31.29$ )이 5%, 합리적 설명( $\beta = .30, F = 25.60$ )이 4%,

<표 5> 남자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문제행동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Delta R^2$	F
1단계					
정서성걱정	.62	.66	.43		35.42***
2단계					
정서성걱정	.59	.62	.49	.06	22.74***
사회성	-.19	-.26			

\*\*\*p<.001

<표 6> 여자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문제행동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Delta R^2$	F
1단계					
정서성걱정	.57	.69	.46		52.72***
2단계					
정서성걱정	.54	.64	.51	.05	31.29***
부애정	-.13	-.22			
3단계					
정서성걱정	.59	.71	.55	.04	25.60***
부애정	-.22	-.38			
부합리적설명	.16	.30			
4단계					
정서성걱정	.59	.71	.58	.03	21.93***
부애정	-.23	-.39			
부합리적설명	.16	.30			
부과잉간섭	.12	.19			

\*\*\*p<.001

과잉간섭( $\beta = .19, F = 21.93$ )이 3%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 문제행동 전체점수에는 높은 걱정, 정서성 기질과 낮은 사회성 기질이 영향을 미치며, 여학생의 경우는 높은 걱정, 정서성 기질과 아버지의 낮은 애정과 합리적설명, 과잉간섭의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사회적위축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사회적 위축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기 양육행동과 학대경험, 그리고 대학생 기질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7>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위축 문제에 대해서 남학생의 경우, 기질의 하위요인인 사회성( $\beta = -.43,$

$F = 28.15$ )이 37%의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성의 두려움( $\beta = .36, F = 25.98$ )이 1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beta = -.24, F = 20.71$ )의 양육행동이 4%의 설명력을 보였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는 기질 하위요인인 정서성의 두려움( $\beta = .52, F = 37.76$ )이 사회적 위축 문제를 38%의 높은 비율로 설명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어머니의 애정적( $\beta = -.31, F = 41.95$ ) 양육행동이 19%, 기질의 사회적( $\beta = -.28, F = 33.07$ )이 5%, 어머니의 비밀관성( $\beta = .22, F = 29.45$ ) 양육행동이 4%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남학생의 사회적 위축 문제행동에는 낮은 사회성과 정서적으로 높은 두려움 기질, 그리고 낮은 어머니의 합리적인 설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사회적 위축 문제행동에는 정서적으로 높은 두려움 기질과 어머니의 낮은 애정적 양육행동, 기질적으로 낮은 사회성, 그리고 어머니의 비밀관적인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남자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사회적위축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beta$	$R^2$	$\Delta R^2$	F
1단계					
사회성	-.76	-.62	.37		28.15***
2단계					
사회성	-.60	-.49	.52	.15	25.98***
정서성두려움	.58	.42			
3단계					
사회성	-.53	-.44	.56	.04	20.71***
정서성두려움	.50	.36			
모합리적설명	-.24	-.24			

\*\*\* $p < .001$

<표 8> 여자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사회적위축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beta$	$R^2$	$\Delta R^2$	F
1단계					
정서성두려움	.72	.63	.38		37.76***
2단계					
정서성두려움	.77	.66	.57	.19	41.95***
모애정	-.42	-.45			
3단계					
정서성두려움	.68	.59	.62	.05	33.07***
모애정	-.34	-.37			
사회성	-.25	-.24			
4단계					
정서성두려움	.60	.52	.66	.04	29.45***
모애정	-.28	-.31			
사회성	-.29	-.28			
모비밀관성	.27	.22			

\*\*\* $p < .001$



3)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과잉행동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과잉행동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기 양육행동과 학대경험, 그리고 대학생 기질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표 9>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9>와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의 과잉행동 문제행동에 대하여 남학생의 경우는 기질적으로 활동성( $\beta = .32, F = 9.75$ )이 16%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아버지의 감독수준( $\beta = -.32, F = 7.69$ )이 7%, 그리고 어머니의 과잉간섭( $\beta = .30, F = 7.66$ )이 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과잉행동 문제행동에 대하여 기질 정서성의 분노( $\beta = .46, F = 13.80$ )가 18%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질의 사회성( $\beta = .31, F = 12.59$ )이 10%, 아버지의 과잉간섭( $\beta = .27, F = 11.28$ )이 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과잉행동에는 기질적으로 높은 활동성과 아버지의 낮은 감독수준, 그리고 어머니의 과잉간섭이 영향을 미치며, 여학생의 경우는 정서

적으로 높은 분노의 기질과 높은 사회성 기질, 그리고 아버지의 과잉간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공격성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공격성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기 양육행동과 학대경험, 그리고 대학생 기질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표 11>과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의 공격성 문제행동에 대하여 남학생의 경우는 기질의 정서성 분노( $\beta = .41, F = 18.16$ )가 27%의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버지의 신체적 학대경험( $\beta = .36, F = 14.76$ )이 1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는 기질의 정서성 분노( $\beta = .50, F = 19.39$ )가 공격성 문제행동에 대하여 24%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정서적으로 높은 분노의 기질과 아버지의 높은 신체적 학대경험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여학생의 경우는 정서적으로 높은 분노의 기질이 공격

<표 9> 남자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과잉행동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Delta R^2$	F
1단계					
활동성	.58	.42	.16		9.75***
2단계					
활동성	.44	.32	.23	.07	7.69***
부감독	-.26	-.30			
3단계					
활동성	.44	.32	.30	.07	7.66***
부감독	-.28	-.32			
모과잉간섭	.27	.30			

\*\*\*p<.001

<표 10> 여자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과잉행동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Delta R^2$	F
1단계					
정서성분노	.38	.44	.18		13.80***
2단계					
정서성분노	.39	.45	.28	.10	12.59***
사회성	.31	.34			
3단계					
정서성분노	.40	.46	.34	.06	11.28***
사회성	.28	.31			
부과잉간섭	.21	.27			

\*\*\*p<.001

<표 11> 남자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기질이 공격성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Delta R^2$	F
1단계 정서성분노	.55	.53	.27		18.16***
2단계 정서성분노 부신체폭력	.41 .45	.40 .36	.37	.10	14.76***

\*\*\*p<.001

<표 12> 여자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기질이 공격성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Delta R^2$	F
1단계 정서성분노	.43	.50	.24	.00	19.39***

\*\*\*p<.001

<표 13> 남자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강박성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Delta R^2$	F
1단계 정서성격정	.78	.53	.27		17.59***
2단계 정서성격정 사회성	.71 -.35	.48 -.31	.35	.08	13.33***

\*\*\*p<.001

<표 14> 여자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강박성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Delta R^2$	F
1단계 정서성격정	.66	.68	.45		49.67***
2단계 정서성격정 부합리적설명	.73 .18	.74 .20	.49	.04	28.19***
3단계 정서성격정 부합리적설명 부애정	.72 .31 -.26	.73 .36 -.27	.52	.03	22.54***

\*\*\*p<.001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강박성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강박성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기 양육행동과 학대경험, 그리고 대학생 기질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표 13>과 <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13>과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의 강박성 문제행동에 대하여 남학생의 경우는 기질의 정서성 걱정( $\beta = .48, F = 17.59$ )이 27%의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질의 사회성( $\beta = -.31, F = 13.33$ )이 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는 기질의 정서성 걱정( $\beta = .73, F = 49.67$ )이 45%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버지의 합리적 설명( $\beta = .36, F = 28.19$ )의 양육행동이 4%, 아버지의 애정적( $\beta = -.27, F = 22.54$ ) 양육행동이 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강박성 문제행동에는 정서적으로 높은 걱정의 기질과 낮은 사회성 기질이 영향을 미치며, 여학생의 강박성 문제행동에는 정서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기질과 아버지의 합리적인 설명의 양육행동, 그리고 아버지의 낮은 애정적 양육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이에 나타난 주요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양육행동, 학대경험, 기질, 문제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문제행동의 관계는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합리적인 설명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전체와 사회적 위축은 높았으며, 비밀관절이 높을수록 과잉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잉간섭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전체, 위축, 강박성이 높았으며, 방임을 높게 경험할수록, 애정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어머니의 감독과 합리적인 설명, 애정이 낮을수록, 방임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행동을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감독과 합리적인 설명, 애정이 낮을수록, 비밀관성과 과잉간섭, 방임이 높을수록 문제행동 전체는 높게 나타났으며, 방임이 높을수록 애정이 낮을수록 위축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독이 낮을수록 과잉행동은 높았고, 감독이 낮을수록 방임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높았으며, 비밀관성과 과잉기대, 과잉간섭이 높을수록 강박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애정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전체가 높았으며, 감독과 합리적인 설명, 애정이 낮을수록, 방임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잉간섭이 높을수록 과잉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과도한 통제는 아동의 위축과 같은 정신 병리적 특성을 야기하며(문유선·김도훈, 2001; Nelson & Erwin, 2000), 감독의 결여는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키고(Parpal & Maccoby, 1985). 방임적인 양육행동은 남아의 외현화 문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비밀관절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적절한 사회화를 초래하는 것으로(김현정, 2001; 이민식·오경자, 2000)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

한다. 특히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가장 관련이 많은 문제행동이 사회적 위축으로 나타난 본 결과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피적이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부모표상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김지영과 권석만(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의 감독결여와 낮은 애정, 방임, 비합리적이고 비밀관절적인 양육행동 그리고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와 간섭, 낮은 애정은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저해하여 과잉행동과 강박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가져오고 이는 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경험은 아버지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높을수록 남학생의 문제행동전체 점수와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아동기나 성인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한 선행연구(Briere & Runtz, 1989; Carmen, et al., 1984; Kratcoski & Kratcoski, 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Bandura(1973)의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이를 학습하여 자신의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유사한 반응을 하게 되어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기질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는 걱정,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기질이 높을수록 남, 여 모두 사회적 위축, 과잉행동, 강박성,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성이 낮을 경우 남학생은 문제행동전체와 사회적 위축, 강박성이, 여학생은 사회적 위축, 과잉행동, 강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성이 높을 경우 남학생은 위축은 낮게, 과잉행동은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과잉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질의 특성 중 활동성이 높을수록 공격성, 품행장애, 과잉행동 등의 외현적인 문제행동 수준이 높으며(김민아·이재신, 2004; 김연, 2007; 한창환, 2001; 허순영, 2004; Nelson et al., 1999), 초등학생의 경우 활동수준이 높고, 분노의 정서를 높게 나타내는 아동은 반항행동을 비롯한 부주의한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 박종효(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연령이 낮은 아동과 높은 아동 모두에게 높은 활동성과 낮은 사회성 기질 그리고 부정적 정서 기질이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 후기의 이러한 기질 특성 역시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 양육행동 및 학대경험과 기질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문제행동 전체점수에 대하여 남학생은 높은 걱정의 정서성 기질과 낮은 사회성 기질이, 여학생의 경우는 높은 걱정의 정서성 기질과 아버지의 낮은 애정, 높은 합리적설명, 과잉간섭이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은 남학생의 경우 낮은 사회성과 정서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기질, 그리고 낮은 어머니의 합리적설명, 여학생은 두려움이 높은 정서성 기질과

낮은 사회성 기질, 어머니의 낮은 애정과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이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행동은 남학생의 경우 기질적으로 높은 활동성과 아버지의 낮은 감독수준, 그리고 어머니의 과잉간섭이 설명력을 가지며, 여학생은 정서적으로 높은 분노 기질과 높은 사회성 기질, 그리고 아버지의 과잉간섭이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은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으로 높은 분노 기질과 아버지로부터의 높은 신체적 학대경험이, 여학생은 정서적으로 높은 분노 기질이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박성은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기질과 사회성이 낮은 기질이, 여학생은 정서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기질과 아버지의 높은 합리적설명, 낮은 애정적 양육행동이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주요변인으로 낮은 애정과 감독수준,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 비일관적 양육행동 등의 부정적 양육행동(손소영, 2004; Aunola & Nurmi 2005)과 언어적, 신체적 학대경험(Briere & Runtz, 1989; Carmen, et al., 1984; Hershorn & Rosenbaum, 1985; Jouriles, et al., 1987; Kratcoski & Kratcoski, 1982), 그리고 기질적으로 높은 부정적 정서와 높은 활동수준, 낮은 사회성 측면(권미경 등, 2005; 박종효, 2004; 이영숙, 2005; Personen, et al., 2003)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기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나 학대 경험, 그리고 부정적 정서와 높은 활동성, 낮은 사회성 기질은 청소년 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대 경험에 대한 영향은 과거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시간이 지난 후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초기 경험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아직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부모에 대한 부정적 표상을 가져와 감정적으로 위축되거나 타인과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방해하여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귀연과 김경연(2005)은 아동기의 위축문제는 부정적인 부모표상이, 공격성에는 부정적인 부모경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후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동기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학대의 경험을 가진 경우는 긍정적인 내적 표상을 가지게 하는 인지조절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후기의 문제행동을 가장 높게 설명하는 요인이 기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질의 측정도구는 정서성과 활동성, 사회성을 측정한 것으로 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배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기질

·환경 적합모형은 기질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취약성으로서 어떤 환경적 자극에 노출되는가에 따라 문제행동이나 부적응 행동으로 발현 또는 억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기질이 문제행동을 적게는 24%, 많게는 62%의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대경험이 더해져 설명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취약성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나 학대경험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질적으로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진 경우, 이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교육적 환경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적 특성은 남, 여 모두에게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 양육행동의 경우 여학생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을 더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합리적인 설명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의 문제행동 전체와 강박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걱정이 많은 기질과 아버지의 낮은 애정이 함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볼 때, 아버지의 애정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합리적 설명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는 양가감정과 같은 갈등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자녀교육에 아버지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여학생의 과잉행동에 높은 사회성 기질이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민희(1998)의 연구에서 사회성이 높은 유아가 과잉행동과 공격적 행동을 높게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성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 기질특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 기질특성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득이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높은 사회성이 높은 활동성과 상관이 있다는 김민희(1998)의 연구결과와 적응성이 높은 유아가 외현적 문제행동을 높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들(김민아·이재신, 2004; 김연, 2007; 김연 등, 2006)을 볼 때 긍정적인 특성의 기질이라 할지라도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은 기질특성은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사회성 기질이 과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기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학대경험은 청소년 후기 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과 기질은 그 특성이 부정적일 경우, 일생에 걸쳐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추후 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는 아동기의 부정적 양육행동 및 학대경험이 청소년 후기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론만 가능할 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후기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대경험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인간관계는 지속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된 모형을 가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민경 · 김혜원 · 안혜영 · 이주원(2005).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 간호학회지**, **11(1)**, 132-141.
- 김귀연 · 김경연(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관계: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 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표상의 인과 효과. **아동학회지**, **26(6)**, 29-43.
- 김민아 · 이계신 (2004). 어머니 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에 대한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45-166.
- 김민희(1998).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만족도에 따른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2007). 유아기질 및 심리적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 · 한태숙 · 정인희 · 박연경 · 황혜정 · 구현아(2006).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 기질,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간의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1(2)**, 229-250.
- 김정옥 · 박경규(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93-115.
- 김지영 · 권만석(2002). 자기 및 타인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05-726.
- 김현정(2001).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기 문제 행동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81-95.
- 남소현 · 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현적, 내면적 부적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15(2)**, 199-213.
- 문유선 · 김도훈(2001). 청소년에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문제행동과의 연관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2)**, 237-244.
- 박근혜(1999). 폭력가정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종효(2004). 기질과 또래관계가 문제행동 및 학습수행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 분석. **교육심리연구**, **18(3)**, 41-57.
- 손소영(2004). **취학전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기질특성과 부모양육태도의 차이**.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보영(1999). **어머니와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문제행동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민식 · 오경자(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 이선옥(2004).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피해 대학생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탐라대학교 정책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숙(2005). **유아의 적응행동과 부적응행동과 관련된 변인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희(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48.
- 장택희(2004). **가정폭력 경험특성이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3)**, 65-91.
- 조성진 · 전홍진 · 김장규 · 서동우 · 김선옥 · 함봉진 · 서동혁 · 정선주 · 조맹제(2002). **중·고등학교 청소년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유병률과 자살지도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1(6)**, 1142-1155.
- 최영희(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창환(2001). **생물유전적 기질과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우울, 품행장애성향 및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성격, 자아상 및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순영(2004).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및 기질 부조화에 따른 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1979). The classification of child psychopathology: A review and analysis of empirical efforts, *Psychological Bulletin*, **85**, 1275-1301.
- Aunola, K., & Nurmi, J. E.(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umrind, D.(1991).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action*. In P. A. Cowan & E. M. Hetherington (Eds), *Family transactions* (pp. 111-16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riere, J., & Runtz, M.(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Vol. 12*, 331-341.
- Buss, A. H., & Plomin, R.(1986). *The EAS approach to temperament*. In R. Plomin & Dunn(Eds.), *The study of temperament: Changes, continuities and challenges*. Hillsdale, NJ: Erlbaum.
- Carmen, E., Rieker, P., & Mills, T.(1984). Victims of violence and psychiatric illnes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 378-383.
- Claussen, A. H., & Crittenden, P. M.(1991). Physical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Relations among type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and Neglect, 15*, 5-18.
- Coleman, J., Wolkind, S., & Ashley, L.(1977). Symptom of Behavior Disturbance and Adjustment to School. *Journal of Childhood Psychology and Psychiatry, 18*, 210-229.
- Crouter, A. C., MacDermid, S. M., McHale, S. M., & Perry-Jenkins, M.(1989).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 and single-earner familie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Davis, L., & Carlson, B.(1987). Observation of spouse abuse: What happens to the childr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 278-291.
- Egeland, B., Carlson, E., & Sroufe, L. A.(1993). Resilience as a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17-528..
- Erikson, E. H.(196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Monograph 1, No. 1,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Felsman, D. E., & Blustein, D. L.(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7*, 121-139.
- Garbarino, J., & Vondra, J.(1987). *Psychological maltreatment: Issues and perspective.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d youth*. N.Y.: Pergamon Press.
- Glaser, D.(2002). Emotional abuse and neglect (psychological maltreatment): a conceptual framework. *Child Abuse and Neglect, 26*, 697-714.
- Hershorn, M., & Rosenbaum, A.(1985). Children of marital violence: A closer look at the unintended victi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2)*, 260-266.
- Jouriles, E. n., Barling, J., & O'Leary, K. D.(1987). Predicting child behavior problems Hughes, in maritally violent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2)*, 165-173.
- Khaleque, A., & Rohner, R. P.(2002).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meta-analysis of cross cultural and inter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54-64.
- Kolvin, L., Miller, F. J. W., Fleeting, M., & Kolvin, P. A.(1988). Social and parenting factors affecting criminal-offence rates: Findings from the Newcastle thousand family study (1947-1980).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2*, 80-90.
- Korn, S. J.(1984).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difficult/easy temperament: Infancy to young adulthood. *Merrill-Palmer Quarterly, 30(2)*, 177-188.
- Kratcoski, P. C., & Kratcoski, L. D.(1982). The relationship of through child abuse to aggressive delinquent behavior.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7*, 199-203.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and Neglect, 27*, 199-213.
- Laub, J. H., & Sampson, R. J.(1988). Unraveling families and delinquency: A reanalysis of the Gluecks' data. *Criminology, 26*, 355-379.
- Loeber, R., & Hay, D. F.(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371-410.
- Nelsen, J., & Erwin, C.(2000). *Parents who love too much: How good parents can lean to love too more wisely and develop children of character*. Roseville, CA: Prima.
- Nelson, B., Martin, R. P., Hodge, S., Havill, V., & Kamphaus, R.(1999). Modeling the prediction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from preschool tempera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4)*, 687-700.
- O'Keefe, M.(1994).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aritally violent home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10*, 403-415.
- Parker, G., Barrett, B., & Hickie, I.(1992). From nature to network: Examining links between perception of parenting received in childhood and social bonds in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 877-880.
- Parker, J. S., & Benson, M. J.(2004). Parent-Adolescent Relations and Adolescent functioning: Self-esteem, substance abuse, and delinquency. *Adolescence, Vol. 39*, No. 115.

- Parpal, M., & Maccoby, E. E. (1985). Maternal responsiveness and subsequent child compliance. *Child Development*, 56, 1326-1334.
- Pelcovitz, D., & Kaplan, S. J.(1994). Child witnesses of violence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rrelates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4(10), 745-758.
- Personen, A., Raikkonen, Keslovaara, & Keltikangas- Jarvinen.(2003). Difficult temperament in childhood and adulthood: Continuity from maternal perceptions to self-ratings over 17yea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9-31.
- Shaffer, D. R.(1996).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Thomas, A., & Chess, S.(1978).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r/Mazel.

접수일 : 2009년 05월 15일

심사일 : 2009년 05월 25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7월 20일